

성매매집결지의 변화상 예술가적인 시선으로

전주문화재단 프로젝트 '안녕, 선미'

10일 선미촌서 예술가들 초청
진행과정·결과물 함께 공유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의 유희공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안녕, 선미'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0일 오후 3시 아티스트토크와 쇼케이스를 통해 그간의 예술적 실험과 장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 5월 24일 참여예술가 선정수여식을 시작으로, 김형미(문학)·소보람(시각예술)·이상한 계절(공연예술) 등 총 3팀(4명)과 함께 약 8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서노송동 696번지에 위치한 공간에서 김형미 작가는 사주심리상담소 '씩점'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얼굴'을 찾는 커뮤니티 방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리방의 대화'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소보람 작가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기면대여소'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적으로 개인의 얼굴을 은폐함과 동시에 사선에의 폭력으로, '나'와 이 거리를 노출시킨다.

이는 참여자의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 참여자는 프로젝트를 위한 장치들을 따라 가면을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의 유희공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안녕, 선미'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선택, 착용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면 된다.

이후 696번지로 돌아와 가면을 반납하면서 원하는 사진 한 장을 작가와 공유하면, 현장에서 엽서로 출력하여 전시한다.

아티스트토크에 참여하는 이상한계절은 선미촌에서 작업한 곡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곡의 일부는 이상한계절이 작업실로 사용한 선미촌 2호점 방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다.

또 5월부터 11월까지 선미촌의 골목골목, 각기 다른 시간대를 기록한 심상과 사진, 글을 담은

사진집과 영상물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안녕, 선미'의 결과공유 아티스트 토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향후 이에 대한 기록은 웹페이지와 결과공유 자료집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재단 담당자는 "약 8개월가량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선미촌의 변화상을 예술가적 시선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러한 드라마틱한 변화보다, 소소한 시선의 변화를 공유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해외전시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오늘부터 14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도와 지원한 '2017 해외전시 지원사업'의 성과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를 갖는다.

8일부터 1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전시실 미라네에서는 해외전시 지원사업 참여 작가와 전시작품을 소개하며 2017 해외전시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 해외전시 지원사업 성과공유 발표회는 8일 오후 4시 결과보고전시 오픈식과 함께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전시에 관심 있는 예술가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해 사업의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재단은 8개국에서 진행된 해외전시 지원사업 13명의 작가에게 총 1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참여 작가는 김선강(미국), 김종대(호주), 류재현(프랑스), 박현진(스위스), 윤철규(프랑스), 이가킵(이탈리아), 이주리(독일), 이희준(독일), 장동국(중국), 장영애(독일), 정소라(독일), 조현동(미국), 진정욱(일본) 등 총 13명이다.

/정해은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빛 야외조각전 '백토고개의 겨울이야기' 27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이 연말을 맞아 빛을 테마로 한 대형 야외 조각 작품들을 야외광장에 설치해 따뜻한 송년 느낌을 더욱 살리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빛 야외조각전 백토고개의 겨울 이야기'는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대형조각전으로 군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가 김상호 전시 총감독을 주축으로 총 9명의 설치미술작가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군산예술의전당이 위치한 '백토고개'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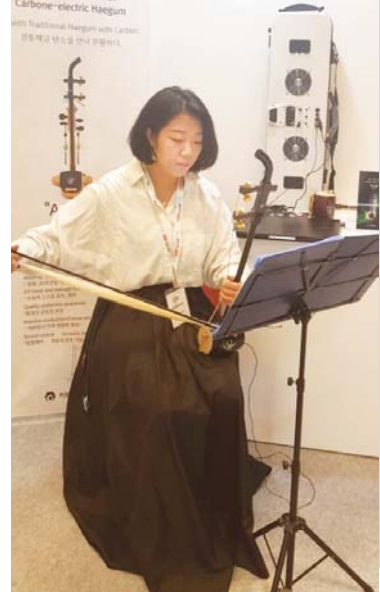
부터 흰색의 흙으로 이루어져 이름 지어진 곳으로, 이번 전시에는 ▲군산을 상징하는 바다이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 ▲각종 캐릭터를 빛으로 형상화한 LED 전시 등이 마련되어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빛을 테마로 한 작품 이외에도 북극곰, 악어 등 대형 야외조각 작품 5점이 곳곳에 전시되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군산=김관민 기자

전통음식과 공연의 맛과 멋 이곳서 느껴보자

전통문화전당 '전주부빚음'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 선봬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경험, 소비 기반이 풍성한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풍류가 생동하는 여향의 도시로 일컬어진다. 또한 느낌의 미학과 한식 미향의 본고장에 걸맞게, 한옥마을을 주 무대로 '슬로시티'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자원을 배경으로, 전통공연과 맛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1층에 위치한 전주부빚음에서는 매주 토요일을 문화공연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부빚음 안미 부부장은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8일 오후 6시 전야제에선 노래를 취미로 하는 두 남자 '덕이와 식이' 팀이 연말연시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2017 사랑 나눔 자선 콘서트'를 연다.

이어 9일엔 '이야기가 있는 해금 미니콘서트'가 전주부빚음의 첫 공식 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남원 교통산성 군기고터 고려 초기 건물이었다

조선시대 건물로 추정했으나
조시 결과 조선과 관련없어

남원시 산곡동에 위치한 남원 교통산성은 둘레 3,120m에 이르고 있으며, 산의 정상 높이는 해발 518m이고, 정상에서 능선을 감싸안은 포곡식 산성으로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교통산성의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자료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 중인 남원 교통산성 군기고터 발굴조사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20일 학술자문회의, 7일 교통산성 군기고터 현지보고회를 발굴조사 현장에서 실시했다.

남원 교통산성은 문헌에 조선시대 산성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동안 교통산성 및 그와 관련된 부속건물지 등은 조선시대와 결부시켜왔다. 물론 현재는 교통산성을 제외한 건물지 등은 오래전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어 정확한 위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군기고터는 교통산성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그 위치가 구명되어온 건물지로 지표에서 철제 화살이 수습된 바도 있다. 이에 관련자들은 그동안 이곳을 조선시대 군기고터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와는 관련 없는 통일신라말~고려 초기의 대규모 건물지로 확인되었다.

발견된 유물은 평기와류가 대부분인데 통일신라시대 문양으로 추정되는 무늬가 없는 무문과 선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선문계 기와,



그리고 격자문이 새겨진 격자문계 무늬가 다수 수를 이룬다. 특히 생선뼈무늬가 표현된 어골문계 기와가 소량 출토되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문양으로 어골무늬의 초기형태로 추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건물지가 조성된 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통일신라말~고려 초로 추정되는데 사용시기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